

미술품 온라인경매 영역 확장세



김창열의 물방울 작품 '무제'.



조선후기에 제작된 '강원도곡식통'.

미술품 온라인 경매시장이 새로운 잠재 고객을 개발하며 미술시장 판을 넓히고 있다. 오프라인 미술시장이 단색화일색인 반면, 온라인 경매시장은 다양한 아이템과 중저가 전략으로 불허되었던 미술애호가 계층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옥션·K옥션 양대경매사의 메인경매가 고가 작품과 대부분 '콘서트'를 위주로 편중되게 대체하면, 온라인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특성으로 새로운 고객층의 도출이 되고 있다. 전통 고미술부터 현대 아트도이·카펫까지 폭넓고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여 미술품 소비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서울옥션 제 15회 온라인 경매가 이같은 현상을 증명하고 있다.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최초로 피규어 자전등을 출품한 이번 경매는 '키덜트(kidult)족'의 환호를 받았다. 20만원에 시작한 베이브리의 'AG Stars 400%'는 30여회의 경합 끝에 101만원에 낙찰됐다. 파란색에 별무늬로 뒤덮인 이 베이브리는 20세기 초 최고의 섬유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알렉산더 지라드'가 디자인한 유니크한 모델로 경매에 오르자마자 관심을 끌었다. 이 뿐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의 피규어는 물론 티로봇 등도 모두 낙찰됐다. 디자인 가구 경매도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그 중 덴마크 디자이너 '한스 베그너'의 의자가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제품인 Lot. 68번 양재는 30회까지 최다 경합을 벌였다.

전통 고미술부터 현대 아트도이·카펫도 경합 낙찰 서울옥션 경매 낙찰률 77% 기록... 대중 흥미도 확인

실크, 캐시미어 등 다양한 소재의 카펫(8점)도 모두 팔려나갔다. 이 중 Lot. 80번은 212회까지 경합을 벌여 시작가의 80배를 넘는 403만원에 낙찰됐다. 고가의 주얼리도 새 주인을 찾아갔다. 5.02캐럿의 다이아몬드는 5000만원에 낙찰, 이번 경매 최고가로 기록됐다. 13점 출품된 자전거도 모두 낙찰됐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COLNAGO'의 'Titan CT1' 로드바이크가 51회 응찰 끝에 610만에 판매됐다. 서울옥션은 "이번 경매는 특히, 자전거, 피규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다"며 "이번 경매를 통해 온라인 경매에 대한 대중들의 높은 흥미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옥션 15회 온라인 경매는 낙찰률 77.14%를 기록했다. 24일 열린 K옥션 온라인 미술품 경매도 낙찰률 71.3%를 기록했다. K옥션 자회사로 '옥션 온'에서 'K옥션 온라인'으로 간판을 바꾸고 연 첫 경매였다. 이번 경매는 온라인 경매지만 유명화가들의 고가의 작품을 출품해 눈길을 끌었다. 최교가는 시작가 1000만원에 출품된 김창열의 물방울 작품 '무제'는 7회의 경합 후 1600만원에 낙찰됐다. 물방울 작업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1976년 작품으로 나무위에 그려졌다. 최다 경합은 조선후기에 제작된 '강원도

곡식통'이다. 시작가 30만원에 시작, 75회 경합 끝에 226만원에 낙찰됐다. 뒤주는 경매에 종종 출품되어온 반면, 동글고 길쭉한 형태의 곡식통은 경매에 거의 출품된 적이 없어 이목을 끌던 작품이었다. 미술시장 인기 작품은 경합이 치열했다. 고 권유연화백의 정물(유화)은 27회 응찰 끝에 820만원, 김형근 '연가(4호)'는 800만원에 시작해 16회 경합을 거쳐 1450만원에 낙찰됐다. 또 표승현의 작품 '찢긴 종이조각들 77-8'은 300만원, 변시지 작품 '제주풍경'은 500만원에 낙찰 되는 등 근현대 부분에 출품된 김창열, 권유연, 하인두, 김형근, 표승현, 황용영, 변시지와 해외 부분의 데미안 허스트, 미셸 들라크루아, 존원, 장프랑수아 라리유를 포함한 작품을 두루 선보였고, 인기리에 판매됐다. 동양화 및 고미술품도 온라인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청진 이삼범, 의재 허백련, 소치 허련, 연향 이창현 등의 작품은 모두 낙찰됐다. 의재 허백련의 '장강범영 長江帆影'은 31회의 응찰로 370만원에, 시작가 70만원에 출품된 조선 후기 소나무로 제작된 양산반단이는 24회 경합 끝에 175만원,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비롯한 여러 별을 부처로 형상화한 칠성도는 20회의 경합으로 430만원 낙찰되는 등 동양화 및 고미술 색선의 낙찰률은 76.5%를 기록했다. /이성주 기자

군산시 - 국립오페라단 공동 '세빌리아의 이발사' 내달 11일 공연



군산예술의전당은 국립오페라단의 대표 레퍼토리라 불리는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군산시와 국립오페라단 공동 주최로 오는 6월 11일 저녁 5시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서 펼쳐진다. 1962년 창단된 국립오페라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오페라단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오페라를 제작해 관객들에게 오페라 최고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단체이다. 이번 공연은 국립오페라단의 문화확산사업 '지역사회오페라'로 전막 오페라에 준하는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17세기 스페인 세빌리아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두 남녀의 사랑과 음모, 모략을 재간둥이 피가로와 함께 유쾌하게 풀어가는 오페라 부파(희극적 오페라)로써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Largo al factotum della città)'와 '밤금 들린 그대의 음성(Una voce poxo fa)' 등의 주옥같은 아리아들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공연으로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 배부는 공연 당일 공연시간 1시간 전부터 1인 2매씩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arts.gunsan.go.kr)를 통해 알 수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주대사습놀이 오늘 전야제

2016년 전주대사습놀이 <노다가세 노다나가세>라는 주제로 27일 오후 7시 풍남문공장특설무대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28일~30일 3일간 경기전과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대회는 '4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34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로 나누어 28일 10시 학생전국대회 예선, 29일 10시 전국대회 예선, 29일 4시 학생전국대회 본선 및 시상, 30일 12시 전국대회 본선 및 시상 일정으로 진행된다. 대사습놀이와 더불어 지역 예술가들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한바탕씩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무르녹게 만들 예정이다. 기획초청공연인 <창작국악열전>, 국악계 최고 명인, 명창 그리고 역대 대사습 장인들의 화려한 명품무대인 <장원, 그 찬란한 역사!>, 국악의 현대 그리고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밤샘콘서트>, 한국형 파크 콘서트 <국악의 수도 전주! 대농놀이>는 국악의 대중화를 도모한다. 이들 공연 중 28일 오후 7시부터 경기전 대소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장원, 그 찬란한 역사!>는 역대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장원자 총 12명이 참여해 대회를 웅숭깊게 만든다. 대한민국 국악계를 대표하는 명인, 명창,



명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무대에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보유자 김영자 명창,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보유자 강정숙,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이순단, 중앙대학교 무용학과 채향순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해은 기자

불법복제물 유통 '모바일'로 이동... '영화' 피해 가장 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는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해 불법복제물 유통환경 분석과 침해규모를 파악한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하 침해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침해율은 13.5%로 전년(14.4%) 대비 0.9%p 감소하였고, 2008년 첫 조사 이래 사상 최저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침해율은 '영화'가 22.9%, '음악'이 21.9%, '게임'이 13.6%, '방송'이 11.4%, '출판' 7.7%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조9000만개로 전년(약 2조 2000만개) 대비 7.6% 감소했다. ▲콘텐츠별로 '음악'이 약 12억7000만곡(60.8%), '영화'가 약 12억5000만편(22.1%), '방송'이 약 4억6000만 편(11.8%), '출판'이 약 8000만권(3.9%), '게임'이 약 2900만편(1.4%)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토렌트'가 약 6억 건(3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바일 앱'이 약 3억7000만건(19.7%), '포털 사이트'는 약 3억건(16.5%), '웹하드' 2억9000만건

(15.7%), 'P2P' 2억 건(10.4%),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1억2000만 건(6.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2015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3174억원으로 2014년(2조 2978억원) 대비 약 0.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콘텐츠 시장의 발전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가 증가되었고, 콘텐츠 별 정품 이용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콘텐츠별로 '영화'가 약 7642억 원(33.0%)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 다음으로 '게임'이 약 4875억원, '출판'이 약 4503억원, '음악'이 약 3078억원, '방송'이 약 3073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음악'은 전년 대비 약 30.5%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로 나타났다. 2015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직 간접적인 생산 감소는 콘텐츠산업에서 약 2조4000억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약 3조8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콘텐츠산업에서 약 2만3000명, 전체 산업에서 약 3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PDF 파일은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의 '정보자료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주 기자

전북박물관미술관협, 오늘 워크숍 개최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회(회장 이동희)는 27일~28일 원주에서 '전북지역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정책과 방안'을 주제로 제4회 전북도 박물관미술관 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은 박물관 미술관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고 실질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27일엔 원주 상관리조트에서 학술대회가 개최되며 진행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한한희 전북대학교 교수가 '테크놀로지, 감동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해외 박물관 운영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끝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의 최환 학예연구관이 '우리나라 박물관 정책의 방향과 현황 및 소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며, 김진태 예원예술대 교수는 '지역 미술관 특성화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 홍성덕 전주대학교 교수는 '박물관과 지역학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주제발표에 따른 토론은 엄기일(진안역사박물관 학예사), 이주현(국립전주박물관 학예실장), 김광순(고풍아트미술관장), 김중규(군산근대역사박물관장)가 맡는다. 토론의 좌장은 신성해 원불교역사박물관장이 맡아 진행한다. 이튿날은 원주군 일대의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탐방이 나산형 대한민국의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안내로 진행된다. 이들은 작년에 개관한 대한민국의사박물관 등을 돌아보며, 원주지역 문화유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5월 27일>

<p>▷쥐띠 46년생: 동기간과의 화합이 좋은 운. 60년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방법을 배우기에 좋은 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72년생: 크게 움직이는 것은 불리하다. 84년생: 권법을 이용하면 만민에게 밝혀진다.</p>	<p>▷소띠 49년생: 나서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61년생: 듣기 좋은 말은 독이 된다. 73년생: 한가면에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마라. 85년생: 시소한 일에 동요가 되는 운이니 마음에 중심을 세우고 휘둘리지 말아야 하겠다.</p>	<p>▷호랑이띠 50년생: 문서 작성할 때 꼼꼼하게 살펴봐라. 62년생: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운이다. 74년생: 상하에 끌려가지 말고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86년생: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p>	<p>▷토끼띠 51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63년생: 일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운.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라. 87년생: 이렇사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p>
<p>▷용띠 52년생: 처음에는 힘들고 고독하나 나중에는 뜻대로 이루어지니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64년생: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운. 76년생: 솔직한 자기표현이 필요한 운. 88년생: 먼저 내보내면 후에 더 큰 이익이 있다.</p>	<p>▷뱀띠 53년생: 상행은 좋게 흘러가겠다. 65년생: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리기 힘들니 미리 주의하라. 77년생: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라. 귀인이 나타난다. 89년생: 동기간과 함께 하면 불가능한 일도 해볼 수 있는 운이다.</p>	<p>▷말띠 54년생: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운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6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78년생: 허나를 잃으면 둘을 얻을 수 있는 운. 90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p>	<p>▷양띠 55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지는 좋지 않다. 67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되니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9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91년생: 자중하며 내일을 다지는 것이 좋은 때.</p>
<p>▷원숭이띠 56년생: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68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대처하지 마라. 80년생: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질 때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적 소모는 많고 얻는 결과는 적으니 무리하지 말아야 하는 운.</p>	<p>▷닭띠 57년생: 금전이 들어왔으니 작은 일은 성공한다. 69년생: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 좋은 결과가 있다. 81년생: 대가를 바라다면 실망이 크니 마음을 비워라. 93년생: 평소와 다른 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때.</p>	<p>▷개띠 46년생: 근친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기는 운. 58년생: 처리해야 하는 일은 일찍 움직여야 성사 된다. 70년생: 다른 사람의 덕은 보기 어렵다. 82년생: 처음에는 구설이나 후반에는 화합이니 먼저 배풀면 화답이 있을 것이다. 94년생: 다른 사람의 덕은 보기 어렵다.</p>	<p>▷돼지띠 47년생: 이성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59년생: 상황을 잘 파악하고 행동하라. 71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8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악질이 따르는 운이다.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p>